



#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 회사 지정의 의미와 시사점

이승준 연구위원

## 요약

- 금융안정위원회(FSB)는 2013년 7월 18일 AIG, AXA, 프루덴셜 등 9개 보험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(G-SIIs)로 지정하였음.
  - 같은 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는 G-SIIs의 평가방법 및 규제방안 최종안과 함께 보험산업의 거시건전성 정책 및 감시체계를 발표함.
-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은 주로 비전통비보험 사업의 영위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번에 발표된 G-SIIs는 이런 논의를 반영하여 IAIS가 제시한 지정방법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음.
  - 이들 G-SIIs는 내년부터 매년 11월에 업데이트 되며, IAIS의 G-SIIs 규제방안에 따라 한층 강화된 보험감독을 받게 될 예정임.
- 국내에도 G-SIIs의 국내법인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시스템리스크 방지 차원의 국제적 감독협력 및 정보공유가 중요함.
  - 더불어 글로벌 보험그룹을 지향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국제적 보험감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짐.

- 지난 7월 18일 금융안정위원회<sup>1)</sup>(FSB)는 9개 보험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(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; G-SIIs)로 지정하였음.
  - 미국의 AIG, Prudential Financial, MetLife, 영국의 Aviva와 Prudential, 독일의 Allianz, 프랑스의 AXA, 이탈리아의 Generali와 중국의 평안보험(Ping An Insurance) 등 9개 글로벌 보험 그룹임.

1) Financial Stability Board.

■ 같은 날 국제보험감독자협회<sup>2)</sup>(IAIS)는 G-SIIs 평가방법(Assessment Methodology) 및 규제방안(Policy Measure) 최종안과 거시건전성 정책 및 감시(MPS)<sup>3)</sup> 체계도 함께 발표함.

- G-SIIs의 지정은 2011년 말의 보험회사 통계자료를 가지고 IAIS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적 중요성을 측정한 뒤 감독자의 판단과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매년 11월에 명단이 업데이트 될 예정임.
  - IAIS가 지표기준방식에 기반하여 각 G-SII 후보가 되는 보험그룹의 그룹단위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FSB에 건의하면, FSB와 국가 감독기관이 IAIS의 자문을 받아 G-SIIs 지정
  - 지정방식은 경제와 보험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적어도 3년마다 개정됨.
- 한편 주요 재보험사의 G-SIIs 지정은 이들 재보험사의 대체가능성이나 상호연계성과 관련된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2014년 7월로 미루어짐.
- 향후 G-SIIs는 FSB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와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감독체계<sup>4)</sup>에 맞추어 만들어진 IAIS의 G-SIIs 규제방안에 따라 한층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될 것임.

■ IAIS의 G-SIIs 평가방법은 <표 1>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5가지 범주(Categories)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는 지표(Indicators)로 나누어 측정하는 지표기준평가방식(Indicator-based Assessment Approach)을 사용함.

- 5개의 범주는 보험회사의 규모(Size), 상호연계성(Interconnectedness), 글로벌 영업행위(Global Activity), 비전통·비보험 활동(NTNI; Non-Traditional non-Insurance Activity), 대체가능성(Substitutability) 등임.
- 지표기준평가방식을 주로 하되 보험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IFS(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) 평가방식도 보충적으로 고려함.<sup>5)</sup>

2)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.

3) Macroprudential Policy and Surveillance.

4) FSB(2010. 10), "Reducing the moral hazard posed b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".

5) 임준환(2012. 7), 「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(G-SIIs) 선정논의와 시사점」, KiRi Weekly, 보험연구원.

〈표 1〉 G-SIIs 평가방법 중 각 범주 및 지표 가중치

범주	범주 가중치	지표	지표 가중치
규모 (Size)	5%	총자산	2.5%
		총수입	2.5%
글로벌 활동 (Global Activity)	5%	해외부문 수입	2.5%
		해당국가의 수	2.5%
상호연계성 (Interconnectedness)	40%	금융기관간 자산	5.7%
		금융기관간 부채	5.7%
		재보험	5.7%
		파생금융상품	5.7%
		거대노출	5.7%
		회전율	5.7%
		level 3 자산 <sup>1)</sup>	5.7%
비전통 및 비보험 활동 (NTNI)	45%	비보험부채 및 비보험수입	6.4%
		파생금융상품	6.4%
		단기자금조달	6.4%
		금융보증	6.4%
		변액연금	6.4%
		그룹내부 약정	6.4%
		부채 유동성 <sup>2)</sup>	6.4%
대체가능성 (Substitutability)	5%	특정 보험사업부문 보험료	5%

주: 1)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의 관찰이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.

2) 지난 2012년 발표된 초안에는 부채 유동성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최종안에 포함.

자료: IAIS(2013, 7), "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: Initial Assessment Methodology",의 내용을 임준환(2012, 7) 「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(G-SIIs) 선정논의와 시사점」, KiRi Weekly, 보험연구원을 참조하여 수정함.

■ IAIS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전통·비보험 활동으로 45%의 가중치를, 다음으로 상호연계성이 40%의 가중치를, 나머지 3개의 범주는 각각 5%의 가중치를 가짐.

● 이들 범주 내에서 각 세부지표는 같은 가중치를 가지게 되어 각 지표 별로 2.5%에서 6.4%의 가중치를 갖게 됨.

■ 이번에 발표된 G-SIIs 지정을 통해 전통적 보험사업모형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됨.

- 예를 들어, 보험회사의 전통적 사업모형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 규모가 커져도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한다고 할 수 없음.
-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드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.
  - 특히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중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비전통·비보험 활동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예정으로, 각국의 글로벌 보험그룹은 전통적인 보험사업모형에 집중할 유인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.
  - 비전통비보험 활동 같은 시스템리스크와 관련성 높은 사업모형에 대하여 추가손실흡수(HLA<sup>6</sup>)와 같은 추가자본규제를 2019년부터 도입할 예정임.
- 이번에 지정된 G-SIs 중 다수가 한국 보험시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국제적인 감독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.
  - 나아가 글로벌 보험그룹을 지향하는 국내 보험회사라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보험감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커짐. [kiri](#)

---

6) Higher Loss Absorbency.